

# “반값 할인 쏟아진다”...대형마트, 가정의 달 할인 퍼레이드

이마트 광주점, 6일까지 슈퍼세일...한우·생필품 등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 8일까지 ‘극락달’...제주 감귤 9990원 등 신선식품 할인도

대형마트가 각종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를 기념해 ‘슈퍼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점은 행사기간 매일 다른 신선식품 특가 행사와 가공 식품, 주요 생필품, 가전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우선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온가족 고기파티’ 행사를 진행한다. ‘한우 등심(100g) 1+등급과 1등급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각각 기존 판매가의 절반인 6690원, 5690원에 판매한다. 또 ‘호주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를 50% 할인하며, 삼겹살·목살·앞다리살·등갈비·항정살·갈매기살 등 돈육 전품목에 대해서는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한다. 광주점은 최근 가격이 오른 수산물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광주점은 고등어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에 따라 고등어를 50% 할인가에 선보여 불가

안정에 한 손 보태기로 했다. 오는 6일까지 ‘우럭회’ 전 품목에 대해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오는 9일까지는 냉장 안등 간고등어(팩·2마리)를 2팩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그 밖에도 광주점은 행사 기간 냉동먹거리와 생필품 100여 종에 대해 ‘1+1’,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하며, 삼성·LG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 대형가전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이고 금액대별로 최대 125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극락달’을 진행한다. ‘극락달’은 수요가 높은 주요 먹거리를 연중 최저가로 선보이는 행사로, 가정의 달 및 봄 나들이 시

즌에 맞춰 구이류, 인기 가공 식품들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행사기간동안 한우(1등급) 전품목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한다. 특히 ‘1등급 한우 등심(100g, 냉장)’은 오는 6일까지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4990원 최저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는 옐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캐나다산 삼겹살 목심(100g)’을 50% 할인 판매한다. 그 밖에도 오는 2일에는 오리데이(5월 2일)를 맞아 핫프라이스 상품인 ‘혼제오리 슬라이스 3종(500g)’을 행사 카드 결제 시 기존보다 6000원 할인한 8990원에, ‘무항생제 오리슬라이스(500g)

는 40% 할인가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과일 등 신선식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오는 2일부터 ‘제주 GAP 하우스 감귤(500g)’을 9990원에 판매한다. 또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리틀 과일’ 기획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리틀과일은 크기가 동일 품목 대비 절반인 과일로,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의 과일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B750 리틀 바나나(베트남산)’를 2송이 이상 구매 시 송이당 1490원에, ‘꼬마참의(1.2kg)’는 8990원 특가로 하루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선물 고민 끝”...광주신세계, 연령대 별 선물 추천

‘백꾸’ 아이템·찰찬세트 등 다양  
광주신세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념일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 제안과 할인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10~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백꾸’ 아이템을 추천한다. 백꾸는 가방(bag) 꾸미기를 뜻하며, 과거 유행했던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와 ‘폰꾸’(휴대폰 꾸미기)에 이어 최근 젊은 여성 고객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방을 장식할 수 있는 ‘키링’ 또는 ‘백참’(bag charm)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광주신세계도 관련 제품을 준비했다. ‘질스투어트’ 매장에서는 토끼 인형 백참(3만 8000원)을 판매하고, 가정의 달 선물로 백참을 고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품목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화려한 디자인의 주광용품 등에 관심이 많은 30~40대 고객들을 위해서는 ‘드롱기’ 제품을 선보인다. 드롱기 매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포트와 커피머신, 미니오븐이 포함된 ‘아이코나 빈티지 라인’을 만나볼 수 있다. 드롱기 매장은 오는 12일까지 ‘드롱기 전기포트’를 기존 판매가(22만9000원)보다 40% 할인된



1일 광주신세계 ‘질스투어트’ 매장 직원이 ‘토끼 인형 백참’을 부착한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13만 9000원에 선보이는 등 가정의 달 할인 프로모션에 나선다.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브랜드인 ‘빌레로이앤보흐’는 50대 이상 고객들을 위한 찻잔세트를 판매한다. 빌레로이앤보흐는 가정의 달 기념으로 ‘디자인 나이프 웨딩티셋 5P 세트’를 기존보다 30% 할인된 26만 8800원에 판매하는 등 풍성한 프로모션

을 마련했다. 김은석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품목을 선별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연령대별로 추천드렸다”며 “백참처럼 트렌디한 선물부터 건강기능식품 등 기존에 인기 많았던 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지역 베이커리 ‘베비에르’ 5월 동행축제 열기 더한다

8일까지 전 지점 10% 할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일 ‘5월 동행축제’에 지역 베이커리 업체인 ‘베비에르’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캠페인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축제에 참여한 베비에르는 1991년 광주 서구에서 시작해 현재 11개의 지점과 해협공장을 보

유한 지역 대표 제과기업이다. 베비에르는 유기농 밀가루와 유산균, 발효종을 사용한 친환경 빵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다. 또 베비에르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당일 소진되지 않은 빵은 매일 지역 복지센터에 후원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는 2023년 제과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베비에르는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는 8일까지 11개 전 지점에서 모든 제품을 10% 할인 판매 한다.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동행축제는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다”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동행축제 기간에 향토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수산대전’ 쪽~ 19일까지 가정의 달 특별전

마트·온라인몰서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2~19일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연다. 소비자가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3~14일 개최한다. 소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63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불황 뚫었다...백화점·대형마트 ‘이익개선’

1분기 롯데쇼핑·이마트 등 이익 증가  
가정의 달 ‘쇼핑대전’ 2분기 성과 기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불황이 닦인 올해 1분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이룬 것으로 전망 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일)을 시작으로 신세계(8일), 현대백화점(9일) 등 유통 기업들이 잇따라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6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롯데쇼핑(이하 연결 기준)의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0.41% 증가한 3조5762억원, 영업이익은 3.42% 늘어난 1163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롯데쇼핑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에 힘입어 모든 사업부문 손익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다. 증권사 9곳의 컨센서스를 집계해보면 신세계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6128억원과 165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3.16%, 8.39%

증가했다. 신세계 역시 1분기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마트는 증권사 6곳의 컨센서스 기준 1분기 매출은 2.64% 증가한 7조3235억원, 영업이익은 37.83% 늘어난 188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현대백화점은 1분기 매출은 1조60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828억원으로 6.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GS리테일은 증권사 6곳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1분기 매출은 4.51% 증가한 2조8220억원, 영업이익은 37.34% 늘어난 640억원을 각각 달성한 것으로 전망됐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1분기 매출은 1조9685억원으로 6.4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69억원으로 0.2% 감소한 것으로 예상됐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277억원에서 올해 255억원으로 7.76%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업계는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쇼핑 대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2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